

## 서평 및 에세이

- ▮ 『초고층 - 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전시장』을 읽고  
장 부 성
- ▮ 어느 시대이건 창작은 인간의 몫,  
기술은 인간을 보조하는 도구다  
『저작권의 진화』  
김 정 규
- ▮ 수용자, 교도소 내 평생학습자의 다른 이름  
『백년의 교도소』  
김 진 한
- ▮ 책상 서랍 속 붉은 서사의 귀환  
- 중국 북방 여행기 -  
최 선 희



# 『초고층 - 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전시장』\*을 읽고

강 부 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간의 역사는 곧 ‘높이’를 향한 투쟁의 역사였다. 바벨탑에서 시작된 수직을 향한 갈망은 현대에 이르러 마천루라는 이름의 거대한 수직 도시를 탄생시켰다. 정광량 저자의 『초고층 - 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전시장』은 단순히 화려한 외관을 뽐내는 초고층 빌딩에 대한 찬사가 아니다. 이 책은 그 거대한 구조물 속에 숨겨진 치열한 공학적 사투와 인간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보이지 않는 뼈대’에 대한 기록이다.

## 1. 욕망과 기술, 그 팽팽한 균형의 기록

책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초고층 건축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이를 뒷받침하는 최첨단 ‘기술’이 만나는 지점이다. 저자는 대한민국 초고층 구조 설계의 산증인이자 독보적인 전문가로서, 지난 30여 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통찰을 이 책에 아낌없이 풀어놓았다.

\* 정광량, 『초고층-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전시장』, 지식의 날개, 2026

\*\* bskang@seoultech.ac.kr.net / (사)건축성능원 이사장, 초고층도시건축학회 4대 회장 역임, 대한건축학회 39대 회장 역임.

저자는 초고층 건물을 단순히 ‘높은 빌딩’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람과 지진이라는 자연의 거대한 힘에 맞서기 위해 동원된 인류 기술의 총체이자,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결정짓는 상징적 기념비다. 세계 최고의 구조설계사무소들과 협업하며 쌓아온 저자의 경험은, 독자로 하여금 화려한 커튼월 너머에 존재하는 중력과의 싸움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한다.

## 2. 3대와 4대 회장, 같은 길을 걷는 동료의 시선

필자는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CTBUH-K)의 4대 회장으로서, 3대 회장을 역임한 저자와 오랜 시간 초고층 건축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왔다. 저자가 이 책에서 보여주는 전문성은 단순히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초고층 건축의 변방에서 중심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공의 기록이다.

저자는 대한민국 구조 설계 분야에서 ‘최고’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인물이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구조라는 본질에 천착해온 그의 궤적은 후배 건축인들에게 커다란 이정표가 되어왔다. 특히 이 책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초고층 건축이 우리 삶과 도시의 안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저자가 가진 공학자로서의 책임감과 인문학적 깊이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 3. 건축성능의 정점, 초고층 건축의 가치

현재 건축성능원의 이사장으로서 이 책을 마주하며 필자가 주목한 것은 ‘성능(Performance)’이라는 키워드다. 초고층 건축은 건축물의 모든 성능—구조적 안전성, 환경적 쾌적성, 방재 성능, 시

공 효율성 등—이 극한에 도전하는 영역이다.

정광량 저자는 본문 전반을 통해 구조가 단순히 건물을 지탱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담보하는지 논리적으로 설파한다. 이는 건축성능원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건축물’이라는 가치와도 정확히 궤를 같이 한다. 초고층 건물은 도시의 고밀도화를 해결하는 해법인 동시에,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대한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저자는 냉철하게 짚어낸다.

#### 4. 도시의 아이콘에서 지속 가능한 수직 도시로

초고층 건축은 이제 한 국가의 국력을 상징하는 단계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의 도시 모델로서 재조명받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이 기술의 전시장 안에서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저자가 참여했던 수많은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건축 기술의 성장판이었다.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얻은 노하우는 이제 이 책을 통해 후대에게 전달될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30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저자의 해안은 초고층 건축이 단순한 ‘욕망의 탑’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기능적 예술’임을 증명한다.

#### 결론: 시대를 짓는 거장의 숨결

『초고층 - 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전시장』은 정광량이라는 거장이 벽돌 한 장, 철근 한 가닥을 올리는 마음으로 쓴 기술적 서사시다. 필자는 이 책이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꿈의 크기를

키워주는 지침서가 되고, 동료들에게는 우리가 지켜야 할 기술적 자존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초고층 건축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온 동료이자 후임 회장으로서, 이 방대한 기록을 남겨준 저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 책을 덮는 순간, 독자들은 우리 머리 위에 솟아 있는 마천루들이 예전과는 다른, 훨씬 더 역동적이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 어느 시대이건 창작은 인간의 몫, 기술은 인간을 보조하는 도구다 『저작권의 진화』\*

김 정 규\*\*  
출판평론가

필자가 출판기획자로 대학출판부에 근무할 때 은퇴를 앞둔 교수들을 만나면 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다. “30년 이상 한 분야를 연구하셨는데, 퇴직하면서 그걸 그냥 개인 금고에 넣어 두시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천착하신 분야의 핵심을 중고 등학생도 입을 만하게 교양서 한 권 꼭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협박성 권유를 했었다.

『저작권의 진화』의 저자 김기태 교수는 필자의 권유를 받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이 책을 받아든 순간 기뻐다. 김 교수는 베스트셀러 기획자로 출판계에서 명성을 날리다가 2000년에 「뉴미디어의 기술 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학자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로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 『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초등학교 국어 활동(6-2) 교과서에 실린 어린이용 『나도 저작권이 있어요』 등 저작권 관련 책을 다수 집필한 원로 학자이다.

---

\* 김기태, 『저작권의 진화: 동굴벽화에서 알고리즘까지』, 지식의 날개, 2026.

\*\* grfor999@gmail.com

『저작권의 진화』는 ‘동굴벽화에서 알고리즘까지’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미디어의 발달사에 기반하여 저작권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추적했는데, 출판계 경험과 저작권 연구자라는 이력을 가진, 이제 환갑을 훌쩍 넘긴 김기태 교수만이 써낼 수 있는 교양서라 할 수 있다.

『저작권의 진화』를 펼치면 본문 시작에 앞서 컬러 화보 같은 지면이 나온다. 구석기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미디어와 저작권 이슈 전개 과정을 요약하고 있다. 책 전체의 흐름을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장치이다. 몇 가지를 보자.

저자는 구석기 시대 그림 ‘라스코 동굴벽화’를 보여주고, 약육강식이 난무하던 원시시대에 웬 예술활동이냐고 질문한다.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라는 말이 있는데, 당시에는 책이 죽간(竹簡)이어서 다섯 수레 분량이라 해도 요새로 치면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면죄부를 인쇄해서 판매하던 16세기 독일 출판계를 소개하면서 출판업자들끼리 무단복제가 성행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 거 같으냐고 질문한다.

빅토르 위고 이야기도 재미있다. 그는 베른협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인데, 가장 짧아 기네스북에 오른 그의 편지가 그렇다. 그가 『레 미제라블』에 대한 시장 반응이 궁금해 출판사에 보낸 편지였는데, 큼지막한 종이에 달랑 ‘?’ 하나만 적어 보냈고, 출판사는 ‘!’ 하나만 적어서 답장을 했다고 한다. (?잘 팔립니까?), !(네, 잘 팔립니다!). 이어서 원숭이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저작권이 카메라 주인한테 있느냐 원숭이한테 있느냐의 논쟁, 코로 그림을 그리는 코끼리가 학대당하는 이야기 등을 소개한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 1장 ‘동굴벽화와 필사 시대’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문자가 생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일별한다. 수량을 세기 위해 매듭으로 만든 결승문자, 구체성과 기록성이 높아진 그림문자,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쓰던 설형문자, 중국의 갑골문자 등의 발생과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문자를 기록하기 위한 매체로서 죽간, 점토판, 파피루스, 양피지, 코텍스, 종이 등의 제작과정과 사용방법, 펜과 잉크의 등장을 소개하면서 “우리 인류는 고유의 창작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문자와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만들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2장 ‘대량복제 시대’에서는 목판 인쇄, 금속활자 인쇄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이로써 인류는 오랜 필사본의 시대를 마치고 마침내 간본(刊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종교개혁, 절대왕권의 붕괴와 시민사회의 탄생, 산업혁명 등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한다.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로 인해 대량 복제가 가능해진 15세기에 이르러 저작물을 복제(copy)할 수 있는 권리(right)로서의 ‘저작권(copyright)’이 생겨났다는 점도 흥미롭다. “인쇄술의 발명은 르네상스가 절정에 이른 시기와 맞아떨어졌고 그 당시 높아진 고대에 대한 관심은 고전 출판을 촉진시켰는데, 이것이 유럽 전역에 퍼진 인쇄 기술과 결합하게 된다. 거기서 발생한 것이 출판물 판매량에 따른 인쇄출판업자의 위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고전의 원본 발견 및 정리 등에 따르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 주는 문제였다. 이에 인쇄출판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왕이나 영주가 인쇄출판의 특권을 보장하는 출판특허제도

가 탄생했고, 이는 인쇄출판업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국왕 또는 영주로 하여금 서적 등에 대한 검열제도를 시행하게 만들었다.”

영국에서는 도서출판업조합에서 국회에 낸 청원을 계기로 1709년에 ‘앤 여왕법’이 제정된다.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비로소 저작자에게 ‘복제권(copyright)’이라는 권리가 주어지고, 이 권리를 양도받아 출판한 출판업자에게는 14년간 독점권이 주어졌다.

출판물이 국제적으로 이동하고 번역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국제조약의 필요성도 생겨났다. 1878년 만국박람회 중 파리에 설립된 국제문학예술협회가 빅토르 위고 명예회장을 중심으로 준비 절차를 거쳐 1886년 ‘베른협약’이 10개국에서 조인되었으며, 1887년 발효되었다. 이 국제조약은 체결국 국민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번역권이 저작권에 귀속됨을 명확하게 밝히는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952년 유네스코의 주도로 ‘세계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이 성립되어 이 두 협약은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양대 산맥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먼저였다.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는 카피라이트를 처음에는 ‘장판(藏版) 면허’라고 번역했으나 후에 ‘출판권’, 이를 줄여서 ‘판권’이라는 단어를 제창했다. 이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는 아직도 ‘판권’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 한국은 1883년 근대식 인쇄소인 ‘박문국’이 설치되긴 했지만 저작권 의식은 없었으며, 1908년 일본인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저작권령을 명치칙령 200호로 공포하여 일본 저작권법을 그대로 빌려 쓰게 되었다.

3장 ‘대중매체 시대: 사진-영화-디지털과 저작권의 만남’에서는 저작권 보호의 취지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다룬다. 저자는 “저작권 제도는 최초로 만들어낸 것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창의적 표현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문학·예술·과학·문화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점에서 저작권이란 ‘창의성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주어지는 법적 대가’라고 정의한다.

문제는 저작권법이 아날로그 미디어에 친화적이라는 것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치는 동안 사람들이 손으로 쓰고, 그리고, 찍거나 인쇄술로 복제해서 만든 저작물을 기준으로 정립된 ‘저작권’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보호 대상 저작물도 사람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물 창작과정에 인공지능(AI)이 개입하고 전 과정이 디지털화한 미디어를 통해 구현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으므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저작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사실상의 저작 행위를 함으로써 저작물을 창작해 낸 사람”이다. “저작물의 내용이나 수준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직업적인 문인이나 학자, 또는 예술가가 아니어도 된다. 법률상 무능력자로 취급되는 미성년자나 정신이상자라 할지라도 저작행위를 했다면 저작자가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법인도 가능하다. 다만, “숨겨져 있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발견했거나 발굴해 낸 사람, 저작물의 작성을 의뢰한 사람, 저작에 관한 아이디어나 조언을 한 사람, 저작을 하는 동안 옆에서 도와주었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

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갖는데, 저작자 자신만이 가질 수 있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했다라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저작자의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출판하거나 외설물로 둔갑시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권리인 공표권,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이 처음 작성한 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여기에서 동일성유지권이 좀 복잡하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 원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에서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소설을 영화로 만들 때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무단으로 주제가 전개과정을 바꾸어 원작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경우 문제가 된다. 번역을 할 경우에도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수로서의 오역은 동일성유지권 침해 사유가 될 수 있다.

저작물의 제호는 독점 우려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저작물의 내용과 어울리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저자는 반론을 제기한다. 정호승 시집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의 경우 이 시집 제목은 내용 중의 「그리운 부석사」의 한 구절을 따온 것이므로 “그 문학적 우수성과 더불어 창작성에 기반한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저작재산권은 일반적인 물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며, 상속 가능하고 채권으로서의 효력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저작재산권이 일반 물권과 다른 점은 상속인 없이, 유언도 없이 사망했을 경우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권리 자체가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그 저작물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하여 문화 및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라는 취지다.

복제권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출판이 대표적인데, 양도받은 사람이 복제권자가 된다. 배포권에서 배포란 “저작물의 원저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복제권을 허락함과 동시에 배포권을 행사하여 지역적 또는 시간적 제한을 둘 수 있어 관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보통 저작자 사후 70년, 공동 저작의 경우 마지막 저작권자의 사망 후 70년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으면 사후 50년이라고 보면 된다.

4장에서는 AI로 인해 촉발되고 있는 저작물과 저작권 문제를 다룬다. 유럽연합은 2017년 AI로봇을 생명체로 인정하겠다는 ‘로봇 시민권 권고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인간에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발표한 AI보고서에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AI 프롬프트 작성만으로는 저작권 보호가 불가능하다. 다만, AI가

창작을 보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며, AI 생성물에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부분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각 국가별 대응방안이나 법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인간이 스스로 고뇌하고 상상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한 결과로 만들어진 예술작품 또는 연구논문과, 빅데이터 학습을 통해 AI가 손쉽게 만들어낸 결과물의 값어치에 차이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만일 누군가 AI로 만든 결과물을 마치 자기가 창작한 것으로 둔갑시킨다면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인간에게 봉사해야 할 기술이 창작의 활성제가 아닌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5장 ‘법과 윤리’에서는 저작권의 행사 방법, 분쟁 해결 방법을 소개하고, 이어서 공공저작물 이용, 저작물의 사적 이용 등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 방법도 잘 정리하고 있다.

책 말미의 ‘나가는 글’에서 김 교수는 디지털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우리 의식은 여전히 무단 복제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의 한계가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위험성을 줄이려면 우선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을 누구든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저작권 보호를 생활화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하고도 공정한 인용의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들도 이용자 편익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

한다. 예컨대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출처를 명시하고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거나 “이용 허락을 얻으려면 반드시 연락해 달라”라고 본인 저작물에 표시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요사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 대한 환상과 관련하여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으로 돌아가 보자”고 제안한다. “인간 그 자체는 분명 아날로그요, 사상과 감정 또한 아날로그에 가깝다. 그것을 제어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디지털은 범접할 여지가 없다”고 설파한다. “저작권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문화의 산물이고, 문화는 곧 우리 스스로 창조하고 면면히 계승하는 것이며, 그것의 주체는 또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법보다 사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정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도입하고 형식적 절차를 보완해야 하며, 고의적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공정이용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보호 관행이 정착된다면 인간 본위의 새롭고 건강한 저작권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저작물 이용에 따른 분쟁을 줄이고 새로운 콘텐츠의 창작 활성화와 더불어 새로운 시장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기술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여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창작은 언제까지나 사람의 몫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한다.

저작권법을 해설하는 책은 여럿 있다. 그러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달사를 프레임으로 해서 저작권법을 분석한 책은

김기태 교수가 쓴 『저작권의 진화』가 처음으로 알고 있다.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자가 출판 분야 활동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법을 연구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책 덕분에 일반 독자들이 저작권법에 다가가기가 훨씬 쉬워졌다.

# 수용자, 교도소 내 평생학습자의 다른 이름 『백년의 교도소』\*

김진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도소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교육과 학습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교도소는 연관이 없는 장소이며, 엮이고 싶지 않은 장소이다. 반면, 교육과 학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개념이며, 활동이다. 교도소는 분명히 잘못된 것, 나쁜 것 등으로 인식되는 반면, 교육과 학습은 지향해야 하는 것, 좋은 것으로 인식된다. 때문에 교도소와 교육 혹은 학습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저자는 교도소를 적극적으로 ‘교육’과 연결한다. 교도소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납득할 만한 이야기이긴 하다. 수용자들이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필요한 내용들이 많을 터이다. 하지만 저자는 조금 더 나아가서 교도소 수용자를 학습자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조금 발칙한 주장을 하고 있다. 도대체 왜 교도소가 학습의 공간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왜 수용자를 ‘학습자’로 이해하여야 하는가?

---

\* 유주영, 『백년의 교도소: 교육으로 감옥을 보다』, 지식의 날개, 2026

\*\* jinhan388@naver.com

## 교도소와 학교

사실 우리는 이미 때때로 교도소를 학교에 비유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에게 ‘학교 다녀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교도소와 학교는 이질적이면서도, 어떤 면에서 많은 지점에서 비슷할 수 있다.

첫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와 학교를 ‘사회화’의 과정에서 바라본다는 점이다. 더 이상 학교는 지식만 전달되는 곳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지식을 탐구할 방법은 학교 외에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대사회가 학교에 더 기대하는 바는 해당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르는 사회화의 과정이다. 교도소도 마찬가지다. 교도소는 형벌이라는 측면에서 제일의 목적을 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결국 출소자들이 교도소 출소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교도소는 ‘재사회화’의 장소로 여겨진다.

둘째로 학교와 교도소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저자는 교도소의 역사를 살피면서 시대마다 필요한 과목을 만들어서 어떻게 수용자들을 교육하고자 했는지 드러내었다. 교도소에는 물론 작업을 진행하는 일과 시간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교육 시간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특정한 방향성과 과목이 국가 수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는 학교도 교도소와 교육의 측면에서 비슷한 면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신체적인 측면에 대한 제한이 크다. 교도소의 수용자와 중등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각 기관에서 정한 같은 옷을 입는다. 수용자들은 입소한 이후 다른 복장에 대한 자유가 없으며, 정해진 복장만을 입는다. 중등학교의 학생들도 대부분 교복을 입는다. 체육복이라는 허용된 다른 복장이 있기도 하지만, 이 또한 통일되어 있다. 교도소와 학교는 소속된 사람들이 복장에서만큼은 다르지 않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이름보다는 번호가 강조되는 특징이 교도소와 학교에서 모두 드러난다. 교도소의 복장에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번호만 남아있다. 물론 학교 교복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학교에 입학하고 학년이 바뀔 때마다 자기 번호를 인지하는 일은 중요하다. 번호로 개인을 부르는 일은 철저하게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이며, 교도소와 학교는 특정 대상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특징은 군대 훈련소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도 ‘관리’라는 측면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학교나 회사, 심지어 자대 배치 이후의 군대에서도 개인이 번호로 불리는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개인이 번호로 불리는 일이 많다는 특징은 교도소와 학교가 공유하는 독특한 특징임이 분명하다.

### 교도소와 학습관리

이처럼 교도소는 ‘관리’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이름이라는 개성 대신 개인을 번호로 지정하고 부르는 일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허용되는 곳이 교도소다. 교도소는 사회로부터 특별한 관리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의 역할을 잘 해내야만 하는 곳이다.

그런 측면에서 교도소는 수용자의 학습에 대해서도 관리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인식된다.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무엇을 학습하는지 살피는 일이 교도소에서 중요한 일이다. 저자가 언급했던 김대두 사건은 이러한 측면을 더욱 부각시켰다. 처음에는 단순폭력배였던 김대두는 교도소 내에서 고급(?) 기술을 배워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다. 이런 학습은 분명하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배움은 아니었다. 때문에 수용자 간 일종의 ‘무형식학습’에 대해서도 교도소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은 커져만 갔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정치범에 대한 학습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치범으로 수감 된 수용자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에 불온서적을 읽거나 올바르지 않은 사상과 관련된 글을 읽는 일도 당연히 관리 대상이었다.

저자가 나눈 시대 구분은 일종의 학습관리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김신일은 ‘타율적 학습관리’를 7가지로 나누었다.<sup>7)</sup> 1) 학습강제, 2) 지원, 3) 권장, 4) 방임, 5) 방해, 6) 억제, 7) 학습금지가 7가지이다. 학습강제와 지원, 권장은 교육적 측면으로 보이기도 하며, 방해, 억제, 학습금지는 비(非) 혹은 반(反)교육으로 불리던 방법이다. 혹은 전자를 ‘정적 교육행위’ 후자를 ‘부적 교육행위’로도 구분할 수 있다. 교도소는 이러한 학습관리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해 왔다.

## 교도소와 학습관리의 역사

먼저 저자는 일제강점기를 ‘순치의 시대’로 명명하였다. 당시

---

7) 김신일, 「학습활동의 관리」, 김신일·박부권 편저, 『학습사회의 교육학』, 학지사, 2005, pp.86-87.

가장 중요했던 작업은 ‘황국신민화’였다. 물론 지금과 다르지 않은 일상적인 범죄를 관리하는 일도 있었지만, 일제강점기의 형무소(교도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리였다. 첫째로는,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제한이 중요하였다. 일제의 입장에서 독립운동가들은 대중을 선동하거나 일본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였기 때문에, ‘수감’은 필수적이었다. 둘째로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일제는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든 포섭하고, 회유할 필요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형무소는 때로 달콤한 제안을 주기도 하였고, 때로 극단적인 신체적 고통을 가하기도 하였다. 어떤 방법이든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관리를 위해 일제는 ‘인물카드’를 만들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는 ‘전향의 시대’다. 독립운동가들이 해방되었고, 미군정이 들어섰다. 이때부터 형무소는 잠잠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반공’이었다. 광복 이후 국제적 냉전시대에 우리나라도 휩쓸리게 되었고, 가장 첨예한 대립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 기존의 독립운동가들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고,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 민주주의 토대에 서게 되었고,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 정부는 사회주의에 기대고 있었다. 당시 많은 지식인은 사회주의를 외쳤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을 관리하였던 형무소가 이제는 같은 민족의 사상을 관리하는 곳이 되었다. 때로는 억울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혹은

‘빨갱이’로 몰려 희생되기도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형무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때부터 ‘지도원’이라는 모범 재소자(수용자) 제도가 생겼다. 이들은 반장과 유사한 역할이었다. 지도원은 형무관(교도관)의 역할을 일부 위임받았고, 같은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입장에 섰다. 지도원 제도는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더 세밀한 권력 작동 방식이었다. 저자는 “지도원제도는 모범적인 재소자의 상을 만들어 전체 재소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재소자가 스스로 규율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였다”(73)고 서술한다. 이는 푸코식의 권력 작동이 여실히 드러난 제도이다. 1985년 지도원제도 자체는 폐지되었지만, 모범수형자가 행정을 보조하는 형태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1962년부터는 ‘개조의 시대’였다. ‘반공’은 여전히 유효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북한과의 대립 구도는 더욱 심해져 갔고, 박정희 암살을 위한 공작도 이루어졌다. 1968년 1월 21일에 김신조 외 30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한 사건은 전국을 흔들었다. 그리고 1968년 12월 이승복 어린이의 사망 사건은 반공에 대한 불을 더욱 지폈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처벌과 신체적 통제는 여전히 전하였다. 수용자에 대한 학습 제한 또한 여전히 있었고 오히려 제한이 강화되었던 측면도 있다. 김지하의 <양심선언> 이후 박정희 정권은 교도소에서 종지와 펜을 금지하였다. 종지와 펜은 3R(reading, writing, arithmetic) 중에서 읽기와 쓰기의 핵심 도구로서, 종지와 펜이 금지된 일은 기본적인 학습의 조건이 제한된 일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교도소 내 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하였다. 형무소는

1961년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도소에서도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사회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었다. 새마을운동이 진행되던 사회의 흐름과 발맞추어 교도소에서도 근면 성실한 생활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술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는 교도소에도 이어졌고, 교도소 내 기술교육도 강화되었다. 물론 저자가 지적하듯이 이는 ‘인간 개조’라는 비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1980년대부터는 ‘순화의 시대’였다. 군부정권은 민주화 투사와 불량배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같이 취급하였다. 이들은 순화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사회에 ‘독소’ 같은 존재였다. 이들을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설치한 기관이 ‘삼청교육대’였다. 하지만 많이 알려진 대로, 삼청교육대에서의 교육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육’과는 다른 교육이었다. 신체와 정신이 이어져있다는 전제하에 신체훈련을 통한 정신교육이 삼청교육대에서의 역할이었다.

그럼에도 수용자의 학습권은 조금 더 확대되었다.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던 신문 구독은 1980년대 후반부터 모든 수용자들에게 허용되었다. 제한되었던 종이도 허용된 것이다. 그리고 라디오와 TV 시청도 확대되었다. 모든 프로그램이 가능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수용자들과 사회의 통로가 마련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자기규율의 시대’가 되었다. 기존에도 지도원 제도가 있었지만, 모범수형자는 자기규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도이다. 수용자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노력하고, 모범수형자가 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 때문에 수용자들은 스스로 교도소의 규

율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하였고, 푸코식의 자기규율이 강화되었다.

이 시기부터는 한국에서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주된 이슈였지만, 이러한 흐름은 수용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인식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어 수용자 인권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를 통해 수용자의 학습권이 보다 확대되었고, 고등교육에도 참여할 기회들이 열렸다. 모든 전공과 과목으로 확대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교도소에서 고등교육에의 참여 기회 제공은 분명한 성과다. 특히 고등교육 참여와 모범수형자 제도가 연계되면서 자기규율은 더더욱 강화되었다.

2007년부터는 ‘치료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특히 성범죄를 중심으로 단순한 형벌과 교육이 아니라 약물치료의 대상으로 수용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게 되었다. 수용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개설되었고, 수용자의 ‘회복’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교도관과 수용자가 수직적 관계였다면 더더욱 수평적인 관계로 변하였고, 이제는 조금씩 교도관이 수용자를 달래주고, 수용자의 눈치를 보는 상황도 생기게 되었다.

2014년부터는 ‘위험관리의 시대’이다. 법무부가 ‘교정교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수용자 재범률을 줄이는 것이 종합대책의 핵심이었다. 영화 ‘마이내리티리포트’와 같이 수용자 중 재범 가능성을 면밀하게 측정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학습이력’을 관리하게 되었다. 학습을 많이 할수록 재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판단이었다. 이제 학습은 단순히 학습이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

범수형자와 위험관리수준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종합지표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 평생학습자로서 수용자

교도소는 오랜 기간 비(非) 혹은 반(反)교육적 학습관리 혹은 부적 교육행위가 크게 작동하였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독립운동가’ 들을, 광복 이후로는 ‘공산주의자’와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이후에는 ‘불량배’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였다. 교도소에서 학습을 금지하거나 억제하고 방해하는 시간이 길었다. 이는 수용자의 학습권을 매우 제한하는 방식이었고, ‘교육’과 상관없이 보이는 방식이었다.

동시에 교도소는 그 오랜 기간 극단적으로 다른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학습강제의 방법이다.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적 사상을 전향, 개조시키기 위해, 그리고 불량배를 순화시키기 위해, 교도소는 학습을 강제하는 최전선의 기관이었다. 부적 교육행위뿐 아니라 정적 교육행위를 매우 적극적으로 실시한 방편이 교도소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교도소는 점차 학습을 지원하고 권장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교도소는 수용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확대하였다. 어떤 장소에서든 학습할 수 있는,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는 ‘교육 받을 권리’와 ‘평생교육’이 보장되는 장소로서 교도소는 기능하고 있다.

이제는 교도소가 어떤 학습을 촉진하는 공간이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답할 때가 되었다. 수용자들이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교도소에서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특히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습할 기회가 박탈당하고 제한되었던 사람들이 수용되었다면, 교도소는 재출발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단순히 교도소가 교육기관 여부를 넘어서 앞으로 어떤 학습이 수용자들에게 필요한지 고민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백년의 교도소』라는 책은 부제처럼 ‘교육으로 감옥을’ 보는 시작점이다. 그리고 그 공간에 있는 수용자도 잊지 말아야 할 평생학습자이다.

# 책상 서랍 속 붉은 서사의 귀환

## - 중국 북방 여행기 -

최 선 희

서강대 중어중문학과 박사

작은 종이 조각이 붉은 생명력을 머금고 내게 돌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늘 그곳에 있었으나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다. 진정한 발견이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던 본질을 새로운 눈으로 마주하는 일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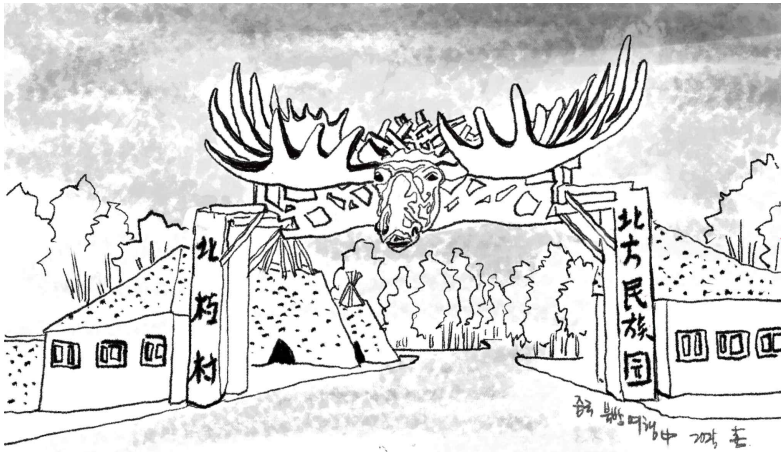
### 숲의 영혼과 조우하다

지난여름 중국 북방 여행의 주목적지는 헤이룽장성이었다. 중국 최북단 모허(漠河)에서 하얼빈(哈尔滨)으로 내려오는 긴 여정이다. 도착 첫날, 모허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우리는 자작나무 숲길을 한없이 달렸다. 규모가 큰 자작나무 숲은 눈이 없는 여름에도 온 세상을 하얀 빛으로 채우고 있었다.

이곳은 '순록을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오르춘족(鄂伦春族)이 터를 잡고 살아온 곳이다. 오르(鄂伦)는 만주족 언어로 oron(驯鹿)과 같고, 춘(春)은 사람(cho)을 나타낸 것이니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 oroncho(鄂伦春), 즉 '순록을 부리는 사람들'이란 뜻이 되었다. 그들은 다싱안링(大兴安岭) 산맥 근처에서 수렵과 채집을 하며 샤머니즘을 숭배해 왔다. 모진 북풍과 눈보라가 앞을 가리는 긴 겨울을 어떤 마음으로 견뎠을까. 혹한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가

야 했기에 자연을 숭배하고 만물의 정령을 믿는 샤머니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달려온 그 자작나무 숲길이 수백 년 전 오르존족이 순록을 타고 달렸을 그 길이였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숲 어딘가에서 순록의 털을 날리며 옛 사람이 달려나올 것만 같았다.

어느덧 차는 오르존족이 살았던 작은 자작나무 마을 앞에 멈추었다. 마을 한 곳을 민속촌으로 꾸며 관광객의 동선을 모아놓은 곳이다. 민족의 이름처럼 커다란 순록의 뿔과 자작나무 문양으로 꾸며놓은 건물이 우리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장식된 순록의 뿔이 예상보다 훨씬 강인해 보였다. 내게 있어 사슴의 뿔은 동화 속 산타할아버지의 썰매를 끌었던 루돌프의 예쁜 뿔이나 시인 노천명의 목이 길어서 슬픈 사슴의 뿔로서 기억뿐이다. 그런데 이곳의 뿔은 마치 넓적한 거인의 손바닥을 펼쳐놓은 것 같았다. 아마도 이들이 살아왔을 세상이 결코 부드러운 동화 속 세상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 같았다. 숲을 압도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이 마을을 감싸고 있음을 느꼈다. 검은 점이 점점이 박힌 건축물은 자작나무의 껍질 문양을 디자인화 한 것 같다. 사실 이것은 가지가 떨어져 나간 자리나 상처 입은 부위에 주변의 피목들이 뭉치고 질어지면서 생겨난 흔적이다. 그런데 오르존족은 자작나무의 검은 점을 숲속 정령의 눈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것은 감시의 눈이자 동시에 나약한 인간을 지켜주는 보호의 눈이다. 아낌없이 주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일 것이다. 때마침 비가 내려 마을로 들어가는 풍경이 더욱 신비로워보였다.



<오르손족 민속촌 입구>

박물관 내부에 들어서니 오르손족의 생활 단면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전시되어있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한 것은 오르손족의 마지막 무녀의 모습이었다. 그림 속 주인공은 누오얼치(Nuorqi, 뉘오르치) 할머니로 ‘중국 오르손족의 마지막 샤먼’이다. 2004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오르손족의 정통 샤머니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녀가 들고 있는 순록 가죽으로 만든 북은 신령을 불러 모아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만드는 샤먼의식의 핵심 도구이다. 머리에 쓴 화려한 장식과 몸에 걸친 색색의 천, 금속 방울들은 모두 영적인 힘을 상징한다. 방울로 잡귀를 물리치고 신을 깨우며 오방색을 몸에 두르고 이승과 저승을 잇는다. 그녀의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 마을 입구의 마당 있는 집에서 굿을 행하는 무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의식이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현대에도 인간은 드물게 무속으로써 자연을 달래고 아픔을 치유하기도 한다.



<오르촌족의 사면>

주거 형태가 바뀌고 생활수단도 발전했음에도 거대한 자연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경외심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작나무 껍질을 이용한 각종 공예용품도 관람하였다. 신성하게 여긴 자작나무로 신령의 형상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마마신을 자작나무 상자에 보관하여 이동하기도 했으며 수저통이나 그릇, 상자, 배 등 모든 생활용품의 재료로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자작나무의 신성함이 자신의 삶을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도처에서 묻어났다.

다음날 우리는 자작나무 숲길을 걸었다. 어제, 안개와 빗줄기 속에 몸을 숨긴 채 낮은 저음으로 신화의 노래를 읊조리던 그 신비로운 숲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다. 빗물에 젖은 채 수많은 검은 눈동자를 번뜩이던 피목들은 햇살을 정면으로 마주한 채 하얀 빛을 토해내며 우리를 맑게 비추고 있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

왔다. 하늘로 쪽쪽 뺏은 나뭇가지 끝에서 바람과 햇빛에 나뭇잎들이 잘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 소리는 단순히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었다. 숲의 정령과 대화하며 수천 년을 버텨온 오르손족의 속삭임이자 그들의 삶이 자작나무 곳곳에서 묻어나는 소리 같았다. 사그락 사그락... 얇고 바스락한 자작나무 껍질과 그들의 삶이 서로 닿는 소리 같기도 하고, 사각사각... 작고 예리한 가위 날이 뺏뺏한 자작나무 껍질을 베어 무는 소리 같기도 했다. 이 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 선으로 옮겨온 신화

2011년 여름 썸 나는 하얼빈 공과 대학의 중국어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다. 프로그램 중에는 중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도 있었다. 대부분의 과정이 오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흥미가 적어 졸음이 오거나 관심이 없으면 아예 다른 일정을 잡기도 했다. 하지만 그 날은 중국의 전통예술인 전지(剪纸)를 체험하는 날이어서 기대가 되었다. 초빙된 강사는 한족 출신의 방정전지 전문가 니슈메이(倪秀梅) 선생이다. 선생은 먼저 방정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다. 방정전지는 하얼빈의 방정현(方正县)에서 발달한 전통 종이공예이다. 방정현은 하얼빈 영내의 작은 마을로 송화강의 중류썸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전지 기법에다 동북 지역, 특히 만주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전통적인 삶과 민속 공예 기법이 융합된 방정 전지가 발달했다. 따라서 민족 간의 정서가 서로 융합하여 거칠면서도 간결하고 따뜻한 향토적 기풍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도 했다. 중국 북

방 지역의 특색을 지닌 무형 문화재를 체험하게 되어 약간 흥분이 되었다. 과거 오르존족이 자작나무 껍질에 무늬를 새기던 풍습이 종이로 보급되면서 전지 형태로 발전한 것이 방정전지이다. 방정전지에는 그들이 숭배하던 마마신이 자주 등장하는데 과거 숲에 존재하던 정령을 전지를 통해 집안으로 모셔와 창문에 붙여두고 자신의 안녕과 복을 비는 생활의 기도가 된 것이다.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선생의 시범을 보고 따라서 하면 된다고 하셨다.

내가 선택한 것은 새와 사람과 황소와 일사귀가 그려진 도안이였다. 처음엔 세 장의 종이를 겹쳐서 정교하게 잘라 내는 것이 쉽지않았다. 다행히 작은 가위 끝이 강하고 날카로워 내 맘을 잘 따라왔다. 섬세하게 선을 따라 가위질을 해 나가는 동안 내 머리 속 잡념이 모두 사라지고 사각사각, 사각사각... 종이가 잘려 나가는 소리만 들렸다. 종이 부스러기가 조금씩 잘려 나가고 형상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니 완성으로 향해가는 희열도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귀엽고 깜찍한 두 장의 방정전지가 붉은 색종이를 뚫고 세상으로 나왔다.

수업을 마칠 즈음 선생은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결과물들을 찬찬히 둘러 보셨다. 내 차례가 되자 숨씨가 좋아 보인다고 하셨다. 그리고 선물로 당신의 작품집 《중화생초(中华生肖)》와 전지 작품 한 점을 주셨다. 《중화생초(中华生肖)》는 12간지 12동물의 모습을 붉은 색종이로 만든 선생의 작품집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룬 전지 작품이었다. 선생은 소질이 있으니 방정전지를 배워보는 것이 어떠냐고도 하셨다. 귀국한 뒤 받은 선물을 살펴보니 분에 넘치는 것이었다. 붉은 전지들은 사진이 아니라 모두 정교한 실물 작품들이었고 같이 주신 또 다른 작품의 수준도 범상치가 않았다. 선생의 제안을 거절한 게 자못 미안했지만 나의

숨씨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해도 당시 형편상 이곳 하얼빈에 와서 방정전지를 배우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래서 작품집은 꿈과 함께 서랍 속으로 들어가 긴 겨울잠을 자게 되었다. 그렇게 방정전지는 점차 내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었다.

내 기억이 다시 작고 붉은 종이 조각에 닿게 된 것은 자작나무 숲길을 걸을 때였다. 사각사각....소리 끝에 마침내 얼굴을 내밀었던 붉고도 작고 귀여운 모습. 그것은 혹시 오르촌족이 자작나무 껍질에 새겼을 원시 정령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虎頭童子><sup>1)</sup>

북방민족이 섬겼던 방정전지 마마신 ‘虎頭童子’의 모습을 살펴 보면 좌우가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다. 상부에는 호랑이의 눈과 귀가 달린 모자를 쓰고 있고 이마에는 왕(王)자가 있다. 호랑이는 북

1) <https://baike.baidu.com/item/%E6%96%B9%E6%AD%A3%E5%89%AA%E7%BA%B8/3161706>  
검색

방 민족에게 모든 악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하면서도 영험한 동물로 여겨지고 있다. 아이들을 질병과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수호의지가 담겨있다. 좌우로 뻗은 날개 모양의 손은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오고가는 존재임을 암시한다. 하단은 가부좌를 튼 둥글고 원만한 선과 물고기 꼬리를 연상시키는 문양으로 마무리 하여 자손의 안전한 번영과 기복을 나타냈다. 몸통 가운데에는 대길(大吉)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어 모든 불운을 막고 오직 큰 복만 불러올 것이라는 주술적 의지를 나타냈다. 흉한 것은 가고 좋은 것만 오라는 마마신의 의지일 것이다. 사냥을 나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고 아이가 추위와 질병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자작나무 숲속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을 응축시켜 놓은 글자이다. 먼 옛날 자작나무의 검은 눈들이 지키고자 했던 어린 생명이 작고 귀여운 붉은 전지로 재현된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내가 완성한 방정전지와 어딘가 닮아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서랍 속 붉은 종이 조각을 꺼내 찬찬히 살펴보았다.

### 붉은 생명의 귀한

내가 완성했던 방정전지는 ‘우두신조(牛頭神鳥)’이다. 북방 민족의 마마신 ‘호두동자(虎頭童子)’처럼 동물과 인간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좌우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커다란 뿔이 달린 소는 풍요의 상징이자 대지를 굳건히 다지는 생존의 근간이다. 하단의 잎사귀는 숲의 생명력과 수확의 기쁨을 나타낸다. ‘虎頭童子’가 종족의 안전한 미래를 기원하고 있다면 ‘牛頭神鳥’는 그 아이를 키워낼 풍요로운 대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牛頭神鳥〉

전지 체험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 세밀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저 내가 소띠이기에 선택했던 문양이었고 잊혀 질지도 모를 작은 체험이었다. 이번 북방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그 붉은 종이 조각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지 못했을 것이다.

내친김에 선생이 주신 《중화생초(中华生肖)》 작품집도 다시 살펴보았다. 12간지 12동물을 글자와 함께 올려놓은 정성스러운 작품들이었다. 그 중에서 특히 소띠를 나타낸 ‘牛氣冲天’ 전지가 눈에 들어왔다. 하늘로 솟은 빨은 번성을, 엉덩이와 몸통에 새겨진 겹겹의 꽃들은 묵묵히 노력한 결과 얻게 될 화려한 결실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소의 발치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들로 소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솟아날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다. 방정전지 ‘牛頭神鳥’의 소가 신령하고도 영험한 존재라면 ‘牛氣冲天’의 소는 우리 삶 곁에서 풍요와 복을 가져다주는 친근한 존재로 보였다.



<牛氣冲天>

소띠 해에 태어난 나 역시 소처럼 우직한 삶을 살아온 것 같다. 60대 중반을 넘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때로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비도,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된 계절도 있었다. 인생이 왜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소의 걸음 같아야 하는지 자문하며 힘들었던 날도 있었다. 하지만 자작나무 숲과 순록의 뿔이 하늘을 향하듯, 진흙을 딛고 선 소의 두 발이 사실은 ‘축복’이라는 꽃을 키워내기 위한 귀한 걸음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 묵직한 걸음들은 결코 헛된 소모가 아니라, 내 삶의 결실을 피워내기 위한 단단한 다짐이었던 것이라고. 이제 나는 니 선생이 전지 속에 정성껏 새겨준 바람처럼, 소의 정직한 기운 아래 내 생의 가장 화려하고 따뜻한 복(福)을 마주하려고 한다. 우직하게 견뎀 온 대지의 시간이 비로소 찬란한 붉은 꽃이 되어 내 앞에 피어나고 있다.